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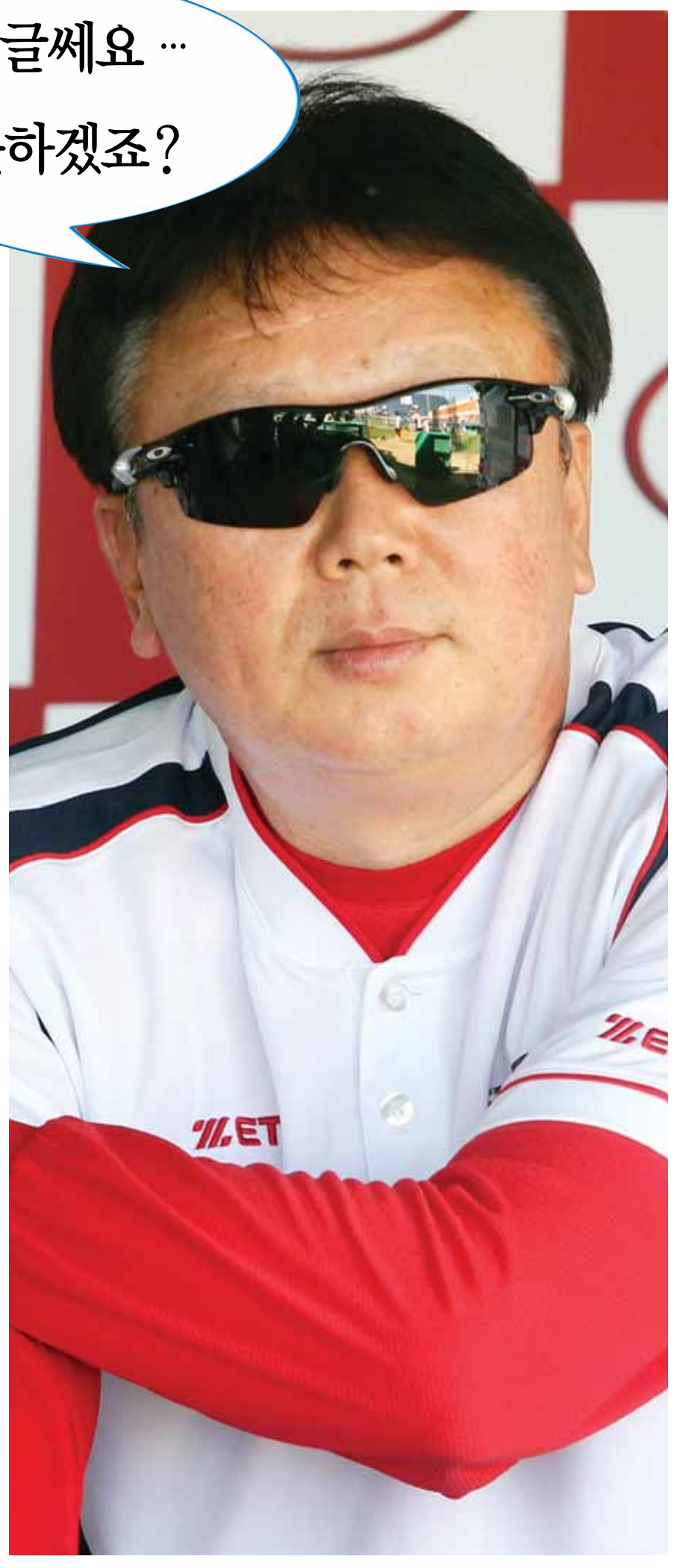
오늘이 고별무대
아쉽구만... 자넨?

KIA, 오늘 광주서 한화 상대 시즌 최종전 선동열·김응용 감독을 계약 만료 거취 주목

17일 전국 4개 구장에서 2014 프로야구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가 치러진다. 8위 KIA는 챔피언스필드에서 9위 한화를 상대로 시즌 최종전을 벌인다. 7개월의 대장정이 끝나는 날 공교롭게도 혹은 잔인하게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의 스승과 제자가 챔피언스필드에서 마지막 만남을 갖게 됐다.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명장과 국보투수로 이름을 날렸던 한화 김응용 감독과 KIA 선동열 감독, 두 레전드가 옛 명성을 뒤로하고 씩씩한 작별을 준비하고 있다. 예상치 못했던 두 감독의 뒷모습이다. 감독과 선수로 타이거즈 전설을 만들었던 스승과 제자는 삼성으로 동지를 옮겨 지도자도 또 다른 부흥기를 보냈다. 감독과 수석코치, 사장과 감독으로 우승의 추억을 더했다. 그러나 감독과 감독으로 다시 만난 두 사람의 모습은 예전과는 달랐다. 고향팀 감독으로 먼저 새출발을 한 선동열 감독은 부임 첫해 5위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8위를 찍으며 3년 연속 가을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특색 있는 야구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뜨겁게 달아올랐던 팬들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다. 2013년 현장에 복귀하며 화제를 모았던 김응용 감독도 2년 연속 최하위 팀 사령탑

이 되면서 쓴 실패를 경험했다. 변화의 바람에 따라가지 못한 리더십과 전력 운영으로 지도자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지난해와 올 시즌 KIA와 한화가 FA 시장의 큰 손으로 나서며 전폭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두 감독의 실패는 더욱 부각된다. 올 시즌을 끝으로 두 사람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17일은 스승과 제자가 사령탑으로 자리하는 마지막 날이 될 전망이다. 스승 김응용 감독의 고별전이 될 무대, 제자 선동열 감독의 내년 시즌도 장담할 수 없다. 최하위는 면했지만 3년 간의 반복된 실패가 아프다. 긴 암흑기 위기에 직면한 팀도 생존을 위해서는 전폭적인 변화와 새출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8·9위 그들 만의 대결로 끝날 씩씩한 2014시즌 최종전이다. 한편 그라운드에도 또 다른 작별이 기다리고 있다. 2009년 당찬 신인으로 V10을 이끌었던 안치홍이 6년간 굳게 지켜왔던 2루를 잠시 벗어난다. 군복무를 위해 2년간 KIA 유니폼을 벗게 된 안치홍이 팬들에게 안녕을 고한다. 최종전 선발로 출격하는 양현종도 포스팅 결과에 따라서는 내년 시즌 국내가 아닌 해외 마운드에 설 수도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글세요...
내년 장담못하겠죠?



KIA, 팬 사인회·그라운드 개방

KIA 타이거즈가 시즌 최종전을 맞아 사인회와 그라운드 개방행사 등을 갖는다. KIA가 1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한화와의 2014 시즌 최종전에서 팬 감사 행사를 진행한다. 팬 사인회와 제2출입구와 제3출입구 사이에서 오후 5시부터 30분간 열린다. 이대형·신종필이 사인회에 참가해 팬들을 만난다. 경기가 끝난 뒤 선수단은 그라운드에 도열해 관중에게 변함없는 응원과 사랑을 보내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팬들은 '사랑하는 KIA 타이거즈 더 멋진 내일을 위해', '더 큰 꿈을 위해 KIA 타이거즈 비상하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 비행기를 그라운드 안으로 날리게 된다. 올 시즌 KIA의 새 안방이 된 챔피언스필드 그라운드를 밟을 수 있는 시간도 준비됐다. KIA는 선수단이 퇴장한 뒤 그라운드를 개방, 팬들이 직접 잔디를 밟아보고 기념 촬영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삼성 '시스템 야구' 전성시대 열다

4년 연속 정규시즌 우승

삼성 라이온즈가 한국 프로야구 정규시즌 연속 우승 기록을 '4년'으로 늘려놓으며 '라이온즈 전성시대'를 열었다.

"무너지지 않은 팀을 만들겠다. 삼성 라이온즈의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류중일 감독과 삼성 프런트의 공언은 현실이 됐다. 해태 타이거즈(KIA 전신)는 1986년부터 1987년까지 4년 연속 한국시리즈 우승을 달성했지만, 1987년에는 정규시즌 2위로 시작해 플레이오프를 거쳤다.

SK 와이번스도 2007·2008년 정규시즌·한국시리즈 통합우승 후 2009년 정규시즌 2위에 머물렀고, 2010년 다시 통합우승을 차지했다. 삼성은 류중일 감독이 부임한 2011년부터 4년 연속 정규시즌을 1위로 통과했다.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대입이다.

삼성은 1996년 2군 전용 훈련장 경산볼파크를 개장하며 선수 육성 강화에 나섰다. 가장 먼저 선수 육성 시스템을 갖추긴 했지만 단기간에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1985년 전후기 통합 우승으로 한국시리즈를 치르지 않은 채 우승을 차지한 삼성은



지난 15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5-3 승리를 거두며 정규리그 4연패의 위업을 이룬 삼성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2년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때까지 '강하지만 최고는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은 우승에 대한 갈증으로 2003년과 2004년, 박종호·심정수·박진만 등 FA(자유계약선수) 시장 대어를 영입해 2004·2005년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후 FA 영입 선수들이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경산에서 성장한 선수들이 삼성 전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최형우·박석민·채태인이 중심타자로 자

리매김했고, 윤성환·안치민·권오준·오승환 등이 투수진 주축으로 성장했다. 4년 연속 정규시즌 우승을 일군 주전 선수 중 외부에서 영입한 이는 장원삼뿐이다. 삼성은 올해 B.B. 아크(Baseball Building Ark)를 설립해 유망주 육성에 더 힘을 냈다. 당장 1군에 진입할 수 없는 유망주를 전문 코치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육성하는 시스템으로 삼성의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완성됐다. /연합뉴스

캔자스시티, 포스트시즌 8연승 29년만에 월드시리즈 진출

만년 최하위에서 '기적의 팀'으로 탈바꿈한 캔자스시티 로열스가 포스트시즌 8연승을 내달리며 29년 만에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에 진출했다. 캔자스시티는 16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컵먼스타디움에서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 4차전에서 2-1로 승리해 시리즈 전적 4승으로 월드시리즈에 선착했다.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우승을 디트로

이트 타이거스에 내주고 와일드카드를 가을무대에 나선 캔자스시티는 단판제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오를랜드 어슬레틱스를 연장전 끝에 9-8로 눌렀고, 디비전시리즈에서는 올해 메이저리그 전체 최다 승률(0.605)을 올린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를 시리즈 전적 3승으로 제압했다. 28년 만에 가을무대를 밟은 캔자스시티는 1985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던 '기적의 시즌'을 향해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갔다. 캔자스시티는 7전 4선승제의

ALCS에서 볼티모어에게 단 한 경기도 내주지 않고 4승을 거뒀다. 미국 야구통계사이트 베이스볼리퍼널닷컴에 따르면 포스트시즌 개막 후 8연승은 2007년 콜로라도 로키스의 기록(7연승)을 넘어서 역대 메이저리그 단일 포스트시즌 개막 후 최다 연승 기록이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AT&T 파크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 4차전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6회 짜릿한 역전극을 펼치며 6-4로 승리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세인트루이스의 홈에서 1승 1패를 거둔 뒤 홈으로 돌아와 2연승, 먼저 3승을 쌓아 2년 만의 월드시리즈 진출에 1승만을 남겼다. /연합뉴스

강혜지 5언더 선두... 이미림 2타차 2위

LPGA 하나·외환챔피언십 1R

강혜지(한화)가 국내 유일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인 하나·외환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 1라운드에서 단독 선두에 나섰다. 강혜지는 16일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오션코스(파72·6364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뚫

어 5언더파 67타를 쳤다. 3언더파 69타로 공동 2위인 이일희(불빅)와 이미림(우리투자증권), 양희영, 카트리나 매슈(스코틀랜드), 호주교포 이민희를 2타 차로 앞선 강혜지는 투어 데뷔 후 첫 우승을 향한 상태였다. 전날 9개 홀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로 2타를 줄인 강혜지는 후반으로 넘어가서는 버디만 3개를 추가하며 리더보드 맨 위

까지 진출했다. 특히 12번 홀(파3)에서는 10m가 넘는 버디 퍼트를 넣으며 상승세를 탄 강혜지는 15번 홀(파4)에서도 버디 하나를 보태며 1라운드를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13일 결혼한 박인비(KB금융그룹)는 버디 4개와 보기 3개를 묶어 1언더파로 공동 15위에 올랐다. 첫 5개 홀에서 버디와 보기를 2개씩 기록하며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인 박인비는 이후 2언더파로 순항하다가 16번 홀(파4)에서 한 타를 잃고 2라운드를 10위권 밖에서 출발하게 됐다. /연합뉴스